

주곡가격은 안정세 부원료가격은 상승세 전망

앞으로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수입개방마저 불가피해져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양축농민에게 보다 밝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원료의 관세를 인하하고, 사료용 대맥수입을 시급히 해야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무역과장

1. 배합사료 생산

지난 '91년의 배합사료 생산이 10%를 넘어 선데 따른 우려감으로 '92년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5%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던 연초의 예상은 크게 어긋나 10%가 넘는 고율 성장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아직 '92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92년 10월말까지의 생산실적을 기초로 해볼 때 '92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약 12,600천톤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약 1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2년 연속의 높은 성장율은 지난 '89년 배합사료 생산량이 1천만톤 시대를 넘어서면서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리라던 모든 축산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어서 한국축산업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료산업의 고율성장이 안정된 축산환경을 근간으로하여 발전해오고 있는것 같으면 별문제는 없으나, 아직도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우려가 채 가지지도 않고, 전반적인 축산경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배합사료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92년 배합사료 생산량의 증가를 두고 업계의 일각에서는 풍요속의 빈곤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년초부터 상승국면에 돌입한 원료가격이 배합사료 가격의 원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양축농가는 양축농가대로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사료대금 수급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외

형은 크게 성장했어도 영업수지면에서는 크게 호전된 것이 없는 어려운 한해였다.

'92년의 배합사료생산량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양계용 사료만이 10월말현재 3,005천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을뿐, 양돈용은 3,595천톤으로 전년대비 15%, 낙농용은 1,604천톤으로 전년대비 5%, 비육우용은 1,907천톤으로 전년대비 21%, 기타용도의 사료는 275천톤으로 64%씩 각각 증가하였다.

이처럼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공급과잉기조에 놓여있던 양계, 양돈사육두수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수년째 배합사료가격도 안정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 생산량과 가축사육 두수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요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축산물 수요증가분의 상당부분마저 수입쇠고기나 수입가공식품으로 대체되면서 축산물 가격은 약세기조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비육우산업보다도 수요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계 및 양돈산업의 불황이 깊고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92년도의 축산·사료동향은 '93년도의 배합사료생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93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을 전망해보기 위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비수준은 아직도 이웃 일본, 대만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사료산업의 성장여지는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축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양축농가의 사육기피심리가 만연되고 있고, 일부 사료원료의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양축농가의 사료원료 직구매를 통한 자가 배합사료생산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과거와 같은 양적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 '92년의 배합사료 생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축종에 따라 일부 과잉공급현상마저 보였고, 전반적인 축산경기가 불황이었으므로 '93년도에는 다소 위축되어 5%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료협회에서 '93년도 배합사료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축산물소비의 회귀분석방법과 생산추세분석방법을 거친 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93년에는 약 13,317천톤의 배합사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예측치인만큼 앞으로의 실적치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년에

(표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구 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1981	1,842,072	52.8	761,204	21.8	470,831	13.5	414,699	11.9	1,650	0.0	3,490,456	100
1982	1,979,841	44.8	1,150,528	26.0	592,346	13.4	692,739	15.7	4,347	0.1	4,419,801	100
1983	2,245,621	38.4	2,013,007	34.4	709,936	12.1	870,595	14.9	12,427	0.2	5,851,586	100
1984	2,064,866	34.5	1,987,411	33.2	852,589	14.3	1,072,394	17.9	7,699	0.1	5,984,959	100
1985	2,309,726	35.8	1,923,692	29.8	994,282	15.4	1,209,042	18.7	14,330	0.2	6,451,072	100
1986	2,639,176	34.4	2,178,297	28.4	1,208,477	15.7	1,624,251	21.2	25,040	0.3	7,675,241	100
1987	2,933,024	32.5	2,953,297	32.7	1,404,234	15.6	1,673,467	18.6	54,207	0.6	9,018,229	100
1988	2,947,385	30.2	3,603,712	36.8	1,608,423	16.5	1,511,624	15.5	96,026	1.0	9,767,170	100
1989	2,922,828	28.1	4,071,563	39.1	1,718,739	16.5	1,561,337	15.0	128,941	1.2	10,403,408	100
1990	3,274,258	31.4	3,550,704	34.0	1,789,611	17.2	1,666,783	16.0	144,363	1.4	10,425,719	100
1991	3,601,079	31.3	3,889,158	33.9	1,864,646	16.2	1,917,664	16.7	210,426	1.9	11,428,973	100
'92(1~10)	3,005,074		3,595,056		1,604,887		1,907,026		275,123		10,387,166	
'91(1~10)	3,000,282		3,114,876		1,529,008		1,570,323		167,297		9,381,786	

(표2) 사료관련 지표면에서의 배합사료 수요

구분	1인당 GNP		1인당	1인당	1인당	배합사료	
	유류소비	계란소비	축산물소비	생	산	생	산
	천원	US. \$	kg	個	kg	천톤	
1970	87	252	5.2	77	9.4	508	
1971	104	289	5.2	78	9.4	702	
1972	125	319	5.5	84	10.1	776	
1973	158	396	5.5	74	9.6	910	
1974	219	542	5.8	80	10.2	927	
1975	288	594	6.4	83	10.9	901	
1976	389	803	6.8	85	11.5	1,382	
1977	490	1,012	8.1	97	13.4	1,899	
1978	651	1,396	10.1	101	15.7	2,693	
1979	823	1,644	11.3	111	17.4	3,880	
1980	968	1,592	11.3	119	17.8	3,462	
1981	1,181	1,734	10.2	114	16.5	3,941	
1982	1,334	1,824	11.3	115	17.6	4,420	
1983	1,554	2,002	13.3	124	20.1	5,852	
1984	1,739	2,158	13.9	122	20.6	5,985	
1985	1,910	2,194	14.4	131	21.6	6,451	
1986	2,207	2,505	14.3	145	22.3	7,675	
1987	2,557	3,110	15.7	156	24.3	9,018	
1988	3,015	4,127	17.0	173	26.5	9,767	
1989	3,353	4,994	18.2	173	27.7	10,403	
1990	4,007	5,659	19.9	167	29.1	10,426	
1991	4,767	6,498	21.7	178	31.5	11,483	
1992	5,040	6,940	24.0	176	33.7	12,698	

비해 증가추세가 둔화내지는 감소하리라고 보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배합사료 생산수준 가지고는 내년도의 축산경기가 좋아지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마당에 다시 사육두수가 늘고, 사료생산이 증가한다면 축산불황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정당한 가격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표4) 축산물 소비추세 (단위: kg)

구분	한 국				일 본				대 만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
1980	2.6	6.3	2.4	11.3	5.1	14.4	10.5	30.0	1.2	36.0	7.7	44.9
1981	2.4	5.4	2.4	10.2	5.3	14.0	10.5	29.8	1.2	35.2	10.6	47.0
1982	2.7	6.1	2.5	11.3	5.5	13.9	10.9	30.3	1.2	34.7	11.1	47.0
1983	2.9	7.4	3.0	13.3	5.6	13.8	10.7	30.1	1.4	29.6	13.7	44.7
1984	2.6	8.4	2.9	13.9	6.1	14.3	12.2	32.6	1.5	37.4	13.1	52.0
1985	2.9	8.4	3.1	14.4	6.1	14.2	12.2	32.5	1.5	34.0	13.1	48.6
1986	3.5	7.7	3.1	14.3	6.8	15.3	12.9	35.0	2.2	38.0	14.6	54.8
1987	3.6	8.8	3.3	15.7	7.2	16.2	13.7	37.1	2.2	37.5	-	-
1988	3.4	10.1	3.5	17.0	7.9	16.8	14.0	38.7	2.3	37.9	-	-
1989	3.4	11.1	3.7	18.2	8.4	17.1	-	-	2.4	37.0	-	-
1990	4.1	11.8	4.0	19.9	9.1	17.1	-	-	2.3	36.4	-	-
1991	5.1	11.8	4.8	21.7	-	-	-	-	-	-	-	-

(표3) 배합사료 수요추정

년	도	배합사료생산량	전년대비증가율
1980		3,462천톤	- %
1981		3,941	0.8
1982		4,420	26.6
1983		5,852	32.4
1984		5,985	2.3
1985		6,451	7.8
1986		7,675	19.0
1987		9,018	17.5
1988		9,767	8.3
1989		10,403	6.5
1990		10,426	0.2
1991		11,483	10.1
1992(추정)		12,698	10.6
1993(예상)		13,317	4.9

감량경영을 통해 사육두수를 줄여 초과공급을 줄여나가야 한다. 결국 '93년도 배합사료 생산 전망은 어떠한 분석기법을 가지고 예측하기 보다는, 차라리 양축농가의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배합사료 가격

'92년의 배합사료 가격은 연초부터 환차손의 발생, 국산 대두박 가격을 비롯한 수입원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물적 유통비용의 상승등으로 원가인상압력에 시달렸던 한해였다.

'93년도의 배합사료가격을 전망하기에 앞서 '92년의 배합사료 원료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주원료 가격의 약세, 부원료가격의 강세로 설
명될 수 있다.

연초부터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재고 감소
및 일기불순이 예상됨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
던 미국산 옥수수가격은 상반기중에 C&F 톤
당 140\$ 선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중국산 옥
수수가격도 C&F 톤당 130불대까지 상승하여
국내 사료업계를 긴장시켰다. 특히 지난해 상
반기이후 C&F 톤당 110불이하에서 까지 거
래되던 사료용소맥의 수출이 끊기면서 전체곡
류사용량중 약 30~40%를 차지하던 소맥 사
용량이 옥수수와 수수로 대체되어가면서 사료
업계의 원가인상압박도 가중되었다. 다행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우려되던 미국 콘벨트지
역의 기후가 호전되고, 생산이 원만하게 진행
되어져 나감에 따라 점차 미국산 옥수수가격
도 안정세에 진입했으며 한때 10불 가까운 차
이를 두고 형성되던 중국산 옥수수와 가격
차이도 2~3불 내외로까지 좁혀지면서 중국산
옥수수의 가격메리트도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그결과 '92년도 옥수수 수입은 상반기에는 중
국산 옥수수가 주종을 이루었고, 하반기에는
미국산 옥수수수입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500만톤이상의 사료용 옥수수가 수입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하반기이후 미국산 옥수수구
매가 증가하게 된 것은 미국산 사료용곡물의
구매시에만 부여되는 GSM-102 자금의 급

리혜택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에와서는 미국산 옥수수가격이 약 120
불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안정을 유지해오
고 있고, 중국산 옥수수가격도 약10불 내외의
가격차이를 두고 시세를 형성해 오고있다. 또
한 금년 상반기이후 수출이 중단됐던 사료용
소맥도 9월이후 비교적 낮은 가격수준으로 가
격이 제시되고 있어 주종원료인 곡류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부원료중 주종을 이루는 대두박의 경
우는 지난 수년동안 중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으나 '91년말 이후 중국의 자국
내 수요증가로 인한 수출억력의 감소로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입선이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즉 연초에는 중국산 대두박의 공급
불이행 사태등으로 인해 수입선이 인도로 옮
겨가려는 것이었으나, 수입된 인도산 대두박의
FAQ(Fair Average Quality) 등급의 품질
은 양호하나 색깔면에서 다소 검은색을 띠자
노란색의 대두박과 배합사료에 길들여져 있던
양축농가와 사료회사의 불만이 늘면서 다시
남미산 대두박으로 수입선이 전환되었다. 그
러나 남미산 대두박의 경우도 품질의 변화가
심하여 어느 모선의 경우 입찰 규정에서 명시
하고 있는 Profat 44% 수준에도 미달하는 사
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는 미국산 및 인도산
48% 대두박구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같
이 대두박 수입선이 수차례 변화하는 과정에
서도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이제는 미산
48% 대두박의 경우 C&F 톤당 250\$ 수준에
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대두박의 강세현상과 함께 채종박가격
도 크게 상승하여 캐나다산 캐놀라박의 경우
C&F 톤당 180\$을 넘어섰고, 인도산 및 중
국산 채종박의 가격도 하반기에 들어 인도산
을 중심으로 공급불이행이 속출하고 이로 인
한 긴급구매가 시행하면서 강세현상이 이어지
고 있으며, 여타 면실박등 박류가격도 급등세

(표5) 주요 원료가격 동향

(C&F, US \$/톤)

	옥수수(미국)	소 맥	수 수	소 맥	대두박(미국)	채 종 박
'92. 1	137.6	131.2	133.7	99.7	236.5	104.0
2	140.5	145.0	138.0	105.0	233.7	104.0
3	139.0	-	136.0	108.6	234.5	100.0
4	131.8	-	129.0	109.2	234.6	100.0
5	135.1	-	129.7	111.0	241.2	100.0
6	133.5	133.5	131.4	105.6	247.2	103.0
7	121.9	135.0	120.5	98.6	237.9	105.0
8	117.2	130.0	105.2	95.0	236.3	106.0
9	118.4	116.0	106.2	97.2	234.0	108.0
10	115.0	114.2	110.0	98.2	238.2	110.0
11	119.6	115.0	118.0	98.5	244.4	109.0
12.23	122.5	115.0	120.0	105.0	260.0	120.0

를 나타내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 원료가격의 급등세와 함께 연초부터 안정세를 유지해오던 강피류가격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큰폭으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소맥피의 가격오파마저도 중단된 상태여서 강피류 수급이 불안한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타피오카 및, 일부 알팔파 펠렛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로서 강피류 및 식물성박류를 전량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부원료 가격의 급등세는 사료업계의 원료수급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원료시장동향을 놓고 보면 '92년의 원료가격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곡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부원료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배합사료가격도 안정을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3년도 배합사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서둘러야하며, 양축가들도 앞으로의 생산원가부담을 감안하여 지나친 가축입식을 지양하고, 가축두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하며 축산물 판매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해나갈 수 있는 축산경영을 계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배합사료 정책

앞으로 한국의 축산업과 사료산업은 정부의 정책의지에따라서 축산물 공급을 외국에 맡기느냐, 아니면 우리 손으로 조달하느냐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적인 주식량인 쌀, 콩등과 같은 식품성 식량의 증산을 위해서는 매년 양곡수매가격을 인상시켜 왔고, 영농비 경감을 위해 영농자금 금리를 인하시켜 왔다.

또한 지난 1988년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결과 쌀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세계제1위라는 성과와 함께 과잉재고라는 부담까지 안게되었다.

그러나 '88년부터 축산업계와 사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농업진흥발전기금의 신설과 함께 묻혀버리게 되었다. 다행히 '92년 대선에서 민자당의 김영삼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 중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천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일반 사료공장이나 지역축협이 생산해낸 배합사료의 실수요자가 똑같은 양축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축협에만 부가세를 면제해준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보면 크게 부당하다. 특히 농협을 통해 공급된 사료의 실수요자는 축협조합원보다도 오히려 더 영세한 측면을 고려하면 전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UR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는 일부 사료원료의 관세인하를 들 수 있으나, 이 또한 아직도 많은 원료가 3~10%의 고율관세로 타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불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수입개방마저 불가피해져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양축농민에게 보다 밝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원료의 관세를 인하하고, 사료용 대맥수입을 시급히 허용함으로써 곡종대체를 자유롭게하여,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기함은 물론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감으로서 궁극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